

민주 對 평화 사활 건 한판 승부

6·13 격전지를 가다

■고흥군수 후보

■고흥군수

고흥군은 호남을 최대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고흥에서도 여당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세는 강력하다. 이 때문에 고흥군수 선거에서는 정당 간 대결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다.

박병중 현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신 흥 강자들이 맞붙는 고흥군수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다. 민주당 공영민(64) 후보와 평화당 송귀근(61) 후보 단 둘이 나서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공식 선거일이 펼쳐지고 있어서 고흥을 내는 선거 분위기로 한껏 달아오른 상태다. 특히 새로운 군수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는 컸다.

일단 여당 후보에 대한 우호적 반응이 있다. 고흥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박모(57)씨는 "고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군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옆 자리에 있던 이모(55)씨는 "이번이 지역 발전의 기회인데 야당 후보를 뽑아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했다.

반면, 여당의 독주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또 그동안 민주당만 무조건 찍었더니 오히려 변한 것이 없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고흥읍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47)씨는 "민주당 후보들만 당선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또 호남을 우습게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40대 택시기사 송모씨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잘 되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오히려 호남을 챙긴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견제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공 후보와 송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군은 인구 6만6700여명에 유권자는 5만9700여명이다.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76%로 높았다.

공 후보 측은 75%를 예상투표율로 가정해 4만5000표 중 2만3000표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목표 득표수는 3만표로 잡았다.

송 후보 측은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80% 정도의 투표율을 예상했다. 2만5000표를 목표 득표수로 잡았다.

두 후보는 모두 관료 출신이다. 민주당 공영민 후보는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23년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다. 이 때문에 예산확보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었다. 기재부 근무 시 전문성과 인품을 인정받아 후배들로부터 '가장 닮고 싶은

	공영민 64·민정당인	송귀근 61·평정당인
재산	1억7257만원	15억1140만원
병역	병역필	병역미필
세금	1억5054만원	1658만원
전과	전과 없음	전과 없음
학력	한성대학교원 정책학박사	명지대학교원 행정학박사
주요 공약	·농동신항 물류기지 확장, 금산 오천항 개발 ·고흥만 첨단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농산물연구단지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마을회관에 고독돌봄센터 운영 ·교복 무상 지원, 고교 무상 급식	·농·수·축 스마트팜 집중 육성 ·로컬푸드 대형 직판장 개설 ·전남 최고 고흥건강복지타운 건립 ·어르신 무상 방문 서비스 확대 ·남해안 제1의 해양관광지 육성

민주 공영민·평화 송귀근 경쟁 치열 '초박빙'

공 "지역발전 위해 힘 있는 여당후보 뽑아야"

송 "변한 것 없어...전세세력 있어야 발전"

고흥읍 기준 북쪽 송, 남쪽 공 후보 다소 앞서

상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과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관광인프라 확충과 컨트론타워 발로 제주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살려 고흥 관광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공 후보는 마슴과 꾀미이를 해볼 정도의 대표적인 흡수저 출신이다. 검정고시로 학업을 이었다. 그는 "눈물 찢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알고 그 분들에게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평화당 송 후보는 행정고시 합격 뒤 33년간 공직의 길을 걸으며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그는 전남도 경제정책과장·지방과장, 장성군 부군수, 고흥군 부군수를 거친 후 행정자치부 주민과장·자치제도과장과 광주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등을 지내며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국가정책을 수립했고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차관보급인 국가기록원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송 후보 캠프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것이 송 후보의 최대 강점"이라며 "이 강점으로 고흥군의 발전을 누구보다 잘 이끌 수 있다"고 자신했다.

7일 현재 판세는 그야말로 박빙이다. 공 후보 측은 "선거 초반 공 후보가 10%중반대 이상의 격차를 벌이며 앞섰다가 공천 후유증으로 잠시 격차가 줄었으나 최근 이를 회복하고 이제는 당선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반면, 송 후보 측은 "선거 초반 민주당 지지세 때문에 열세였으나 점차 회복해서 이제는 백중 우세 상태"라며 "이는 송 후보가 내세운 인물론이 먹혀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 후보가 단수공천을 받는데 반발한 김학영 후보가 송 후보를 지지한 것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적으로는 고흥읍을 기준으로 북쪽에서는 송 후보, 남쪽에서는 공 후보가 다소 앞선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민주당과 평화당의 대결도 불만하다. 평화당은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지난 5일에도 녹동에서 조배숙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유세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정세균·박영선·송영길·김진표·유원식·이개호·박홍근 의원 등 스타 의원들이 지원유세를 했다. 김승남·신문식 전 의원 등 고흥을 지역구 뒀던 의원들도 공 후보를 돕고 있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도에 대해 공 후보 측은 선거에 결정적 승인이라고 판단하지만 송 후보 측은 12년 민주당 지방정권에 군민의 반감이 높다고 분석했다.

힘 박병중 군수는 암묵적으로 공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역 고흥 국회의원인 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다는 각오다. 박 군수의 영향력에 대해 공 후보 측에서는 선거판을 유리하게 이끈다고 분석하지만 송 후보 측은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6·13 선거현장

광주시장·국회의원·구청장 후보

이용섭, 시민과 소통 조용한 선거운동 펼쳐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7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화려한 울동과 시끄러운 확성기, 전화 홍보요원을 통한 일방적인 후보 알리기에 나선 기존의 선거 유세방식과 달리 밀바닥 민심청취부터 봉사활동, 주요현안 현장투어 등과 같은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1자리시장 2용섭의 12대 정책 발표 후 스무차례 넘게 진행한 '주요현안 집중점검 투어'를 공식선거운동 시작 후에도 이어오고 있다"면서 "광주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정책과 비전을 찾아 광주를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우뚝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새로운 광주 만나는 방법 사전투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7일 "새로운 광주를 먼저 만나는 방법은 사전투표이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촛불민심을 통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번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는 서구갑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광주를 대표하는 힘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권력의 시작점이 바로 투표이다"고 밝혔다. 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색깔론 운운하여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세력, 아직도 구시대적인 소외론을 거론하며 선거공학적 접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세력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인, 봉사활동하며 선거운동 강행군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가 봉사활동 등을 하며 선거 막바지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각까지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문 후보는 7일 "새벽 5시 40분에 지역환경미화업체를 찾아 미화요원들과 간담회를 했고, 이어 매일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새벽예배를 마치고 7시부터 출근 인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어 선거사무실 내에서 열리는 주민 간담회를 한 뒤 집중유세, 퇴근인사 등 웅만한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8일, 12일에는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급식봉사를 하고 직접 현장을 누비며 지역민의 현명한 판단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서구청장 후보 합동유세 '눈길'

광주 서갑 평화당 김명진-무소속 임우진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와 무소속 임우진 서구청장 후보가 합동유세로 지지세 결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7일 김명진 후보와 임우진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서구 상무지구 BYC 사거리에서 두 후보의 첫 합동유세가 열렸다.

김 후보는 "제가 국회에 근무하던 시절, 임 후보께서 지역 현안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관찰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전했다. 이어 "서구 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정은 서구 주민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임 후보의 선

전덕영 "낙하산 인사 않고 부적격자 임명 안해"



전덕영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후보는 7일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역대 광주시는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낙하산 인사는 결코 하지 않고, 인사추천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인사는 임명하지 않겠다"면서 "다른 후보들도 광주시민에게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는 인사청탁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었고, 시장 후보의 최측근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후보 자신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지산·산수동 도시재생 모범마을로"



김성환 민주평화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가 7일 "도시재생을 통해 동구 지산동과 산수동을 생기가 도는 동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광주 동구 산수동과 지산동의 낙후된 환경을 바꿔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마을로 바꾸겠다"며 "주민이 원하는 거점시설을 마련하고 공동체 생활을 지원해 도시재생의 모범마을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을공방(동구마루)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공원, 상산놀이터)·스포츠타일 확충, 푸른마을공동체 조성,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푸른길과 함께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지산동과 산수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산수·지산동을 새로운 동네로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은방 "행정조직 개편 통해 지방자치 실현"



이은방 민주평화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7일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북구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행정서비스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재 북구청의 행정조직의 경우, 일부 부서에서 업무의 특성상 타부서에 비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원의 경우에도 지나친 세분화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져 현장중심의 정원배치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서비스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구청정에 신뢰를 갖는 것이 우선돼야 주민들께서도 행정에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서 "북구청 공직자부터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제도를 통한 조직개편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진

임우진

전을 기원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서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도 "100억원 규모의 양동 발전마을 도시재생사업 선정 당시, 국회에서 근무하던 김 후보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며 "뜻이 맞고 생각이 통하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협력해 지역 현안사업들을 추진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 "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태풍의 핵으로 큰 역할을 하기를 동지적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서구 발전을 위해 힘을 함께 모으자"고 말했다.

밝은광주안과의 새이름

신세계안과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현 의료진 그대로)

- 2013년 3D스마일수술 도입
- 3D스마일수술 15,000건 기록 (2018년 2월 28일 기준)
- 레이저 다초점 노안, 백내장 교정술 시행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 원금, 이자 빠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